

## 朝鮮時代『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의 十王版畫

金 廷 禧\*

### 차 례

- |                          |                    |
|--------------------------|--------------------|
| I. 머리말                   | 2. 樣式的 特徵          |
| II.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의 書誌 | IV. 十王版畫 贊과 十齋日 信仰 |
| III. 十王版畫의 形式과 樣式        | V. 맺음말             |
| 1. 形式                    |                    |

### I. 머리말

十王圖는 冥界의 王인 十王이 이승에서의 業에 따라 亡者를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서 唐末五代『預修十王生七經』이 편찬된 이후 이에 의거한 도상이 성립되었다. 즉 시왕도와 시왕경 변상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預修十王生七經』이 전래되면서 시왕신앙이 수용된 후 地藏菩薩 신앙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의 명부신앙으로 정착되었으며 목종대(997~1009)에 이르면 十王寺가 창건될 정도로 발전되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당시 시왕사에는 시왕도가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圖像이 기괴하여 이루 형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기록을 보거나<sup>1)</sup> 현전하는 고려시대의 시왕도에 의해 볼 때<sup>2)</sup> 아마도 시왕의 심판장면과 참혹한 지옥의 광경을 묘사한 그림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예수시왕생칠경』의 변상도가 제작되어 현재 해인사에 2종의 목판본 변상도가 전하고 있다.<sup>3)</sup>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시왕도의 형식을 계승한 시왕도와 시왕경 변상도가 활발히 제작되었는데, 현재까지도 많은 예들이 남아 있어 당시에 조성된 시왕도의 형식과 양식을 파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는

\* 圓光大學校 人文科學大學 考古美術史學科 專任講師

1) 『高麗史』世家 卷127 列傳 卷第1 叛逆1, 金致陽條

2)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시왕도는 일본 개인소장품(幽玄齋所藏, 10폭)과 미국 소장품(호놀룰루미술관 6폭, 나머지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개인에 분산·소장되어 있음)이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安貴淑·金廷禧, 「朝鮮時代 十王圖研究」, 『朝鮮朝 佛畫의 研究(2) - 地獄系 佛畫』(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pp. 26~27 참조.

3) 현재 해인사에는 국보 제216-⑩호(1246년작) 및 보물 제734-③호, 734-④호로 지정된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목판이 남아 있는데 이 둘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본에 대해서는 朴相國 編著, 『全國寺刹所藏木版集』(文化財管理局, 1987), pp. 404~406; 趙純香, 「韓國版 十王經研究」, 『論文集 - 人文社會科學篇』 第15集 第1號(京畿大學, 1984), pp. 245~282 참조.

특히 억불숭유정책에도 불구하고 祈福과 靈駕薦度を 위한 명부신앙의 성행에 따라 명부의 救主인 지장보살과 시왕에 대한 신앙이 크게 성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시왕관계 불화는 『예수시왕생칠경』에 의거하여 도상화된 시왕도와 변상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의 시왕관화는 『예수시왕생칠경』에 의거하여 조성된 일반적인 시왕도상과는 달리 十齋日信仰에 근거하여 조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十齋日이란 한 달에 열번의 특정한 날을 정하여 戒를 지키는 의식으로서 특정한 날에 특정한 佛·菩薩을念佛하면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면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본고에서 다루는 시왕관화에서는 십재일에念佛하는 각각의 불·보살을 시왕으로 대치시켜 이를 도상화하였다. 이 관화는 『念佛作法』이라는 판본에 실려 있는데 이 책이 고려시대 본으로 추정됨에 따라 관화 역시 막연히 고려시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근래에 십재일 신앙과 관련하여 언급된 바가 있다.<sup>4)</sup>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이 판본은 1529년 全羅南道 光陽 萬壽菴에서 版刻된 것이며 시왕관화 또한 版刻수법으로 볼 때 상기 본이 판각될 때에 함께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시왕관화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의 書誌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시왕관화의 형식과 내용을 고찰하고, 이어 시왕관화에 적혀있는 贊에 의거하여 십재일신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도상화되지 않았던 십재일신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시왕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16세기 관화의 시대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의 書誌

시왕관화는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閔泳珪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釋迦如來行蹟頌』<sup>5)</sup>에 수록된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sup>6)</sup>의 뒷부분에 10면에 걸쳐 실려있다. 그런데 두 책에는 모두 刊記가 결여되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들의 書誌를 다른 刊本과 비교해보므로써 版刻年代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4) 한보광,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장의례의 역할」,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장신앙의 재조명』(운주사, 1991), pp. 96~98.

5) 이 책은 『晚城先生八十頌壽 高麗佛籍集佚』(東國大學校出版部, 1985. 5)에서 『念佛作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pp. 471~610). 그런데 원본의 겉표지 왼쪽에 “如來行蹟”이라고 제목을 쓰고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兼付 孝順文 念佛作法”이라 명시한 것으로 보아 『念佛作法』을 如來行蹟이라는 제목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念佛作法』이라 불리게 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念佛作法』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이 책의 명칭을 원래의 표제대로 『釋迦如來行蹟頌』이라 칭하기로 한다.

6) 이 책의 명칭을 이하 『八關齋心要』라 略稱한다.

◎ 高麗大所藏本(晚松文庫本), 木版本, 29.3cm×19.1cm

이 책은 『釋迦如來行迹頌』(版心: 迹 제5~16張, 3·4·17張 탈락)·『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版心: 戒文 1~7張)·『孝順文』(版心: 孝文 1~16張)·『誠殺生文』(版心: 戒殺)·『龍舒善勸修持文』(版心: 탈락) 등 5권의 글을 모은 합철본으로, 제일 앞부분에 실린 『석가여래행적송』<sup>7)</sup>의 명칭을 따라 『釋迦如來行迹頌』으로 불린다. 이 책에는 刊記가 결여되어 정확한 판각년대는 알 수 없지만 1529년에 開板된 『通錄撮要』가 합철되어 있는 고려대 華山文庫本 『석가여래행적송』(21.2cm×15.4cm)과 판본의 체제 및 서체, 내용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通錄撮要』(4권)<sup>8)</sup>의 後記에는 “嘉靖八年己丑月日全羅道光陽縣地白雲山萬壽庵開板藏置於成佛寺”라 하여 1529년 전라남도 광양의 만수암에서 개관하여 성불사에 안치하였고, 주상전하(中宗)와 坡原府院君(중종의 장인 尹汝弼: 1466~1555)의 壽萬歲를 위하여 前 斷俗寺住持 大禪師 戒澄이 大施主가 되어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 「廬山優曇和尚勸修淨業語錄」과 「龍舒善勸修持文」이 첨부되어 있고 제일 끝에 “智異山老碧松堂”의 跋文이 실려 있다. 발문을 적은 碧松堂은 智嚴禪師(1464~1534)인데 그는 28세되던 해 계룡산 上草庵의 祖澄大師 밑에서 출가한 뒤 금강산·용문산·오대산·백운산·능가산 등을 두루 돌아다니다 1520년 3월 지리산으로 들어가 草庵에 머물며 정진을 거듭하였으며, 1534년 11월 1일 壽國庵에서 法華經을 강설한 후 입적하였다. <sup>9)</sup> 따라서 『통록촬요』의 발문은 벽송당이 지리산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통록촬요』가 합철된 『석가여래행적송』과 동일한 판식과 서체를 보여주는 『석가여래행적송』도 1529년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閔泳珪所藏本, 木版本, 26.4cm×18.3cm

이 책은 『孝順文』(版心: 孝文 1~8張)·『誠殺放生文』(版心: 戒殺 9~16張)·『念佛作法』(版心: 念 7~34張)·『釋迦如來行迹頌』(版心: 迹序 1·2張, 迹頌 3~17張)·『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

7) 『釋迦如來行蹟頌』은 1328년 天台宗 僧侶인 無奇가 지은 장편의 敘事詩로서 釋迦牟尼의 誕生에서부터 出家 成道 布教 涅槃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一代 行蹟을 비롯하여 인도불교의 東漸過程 및 末法時代 佛子들의 行法에 관하여 서술한 방대한 글이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모두 6종으로 다음과 같다.

- ① 嘉靖8年(1529) 全羅道 光陽縣 白雲山 萬壽庵板 節要本(高麗大所藏, 通錄撮要 合刊, 不分上下卷)
- ② 隆慶5年(1571) 3月 頭流山 金華道人 義天書 板本(高麗大, 서울大所藏)
- ③ 隆慶6年(1572) 孟秋 頭流山 巨興寺 板本(高麗大, 國立圖書館所藏)
- ④ 崇德8年(1643) 8月 水淸山 龍腹寺 板本(高麗大, 東國大, 國立圖書館所藏)
- ⑤ 崇禎紀元後81年(1709) 乙丑 浩然 後跋本(東國大所藏)

이상은 각 대학도서관 고서목록 및 黃涇江, 「『釋迦如來行蹟頌』研究」, 『韓國佛教文化思想史』卷下(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2), p. 551을 참조하였음.

8) 이 책은 『曉城先生八十頌壽 高麗佛籍集佚』, pp. 615~758에 수록되어 있다.

9) 梵海 撰·金侖世 譯, 『東師列傳』(廣濟院, 1992), p. 110.

心要』(版心：戒文 1~18張) 등 5편의 글을 모아 엮은 불교관계 저술이다. 여기에 수록된 5편의 글은 내용상으로는 고려시대의 거시어로 추정되지만 版式이나 書體·刻法·紙質 등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판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판각연대에 대해서 소장자는 책을 구입하였을 당시 책 안에 쓰여진 기록에 의하여 “嘉靖八年(1529) 全羅道 光陽地 萬壽菴 補刻合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판본의 어느 곳에도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 판본에 수록되어 있는 『석가여래행적송』이 만송문고본과 동일한 판본이기 때문에 이 판본 또한 1529년 같은 장소에서 판각되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八關齋心要』가 수록된 고려대 만송문고본과 민영규소장의 『석가여래행적송』은 모두 1529년 전라도 광양 만수암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팔관재심요』의 書誌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는 江北僧 圓奩이 集述한 것으로서, 唐代 西明寺沙門 道世가 撰述한 『法苑珠林』(大正藏 53) 卷 87~89의 내용을 인용하여 여러 경전에 언급된 齋日에 대해 서술하고 持戒와 設齋의 공덕 등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1986년 木村清孝가 민영규박사 소장본을 보고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는데,<sup>10)</sup> 찬술자인 圓奩은 高僧傳을 비롯한 여러 傳記資料에 이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인물인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江北僧”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중국의 長江 以北, 즉 淮南道(現 강소성) 출신의 승려라고 추측할 뿐이다. 또 이 책의 찬술연대는 대략 10세기말~11세기초 또는 11세기 후반~12세기전반 경으로 추측되는데, 木村清孝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서에서 인용한 글에서 언급된 “司馬溫公”은 王安石의 新法黨에 대항한 舊法黨의 黨首이자 『自治通鑑』의 저자인 司馬光(1019~1086)을 지칭하므로 본서의 성립은 그가 “太師溫國公”이라는 칭호를 받은 1086년 이후, 또는 사후(1086년)부터 북송말(1127년)까지 다시 신법당이 세력을 얻어 그의 명예가 회복된 남송(1127~1129)초 이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본서에 인용된 불교승려들이 주로 延壽(904~975), 晤恩(912~986), 知禮(960~1028), 遵式(964~1032), 智圓(976~1022), 重顯(980~1052), 契嵩(1007~1072) 등 10세기~11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인물들인 점으로 보아, 원혁이 이 책을 편집하고 거기에 11세기말 또는 12세기전반에 누군가 “司馬溫公云”의 부분을 첨가하였든지 아니면 원혁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책을 11세기후반~12세기전반에 편집하였을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11)</sup>

책의 구성은 2면에 걸쳐 『法苑珠林』 卷88 述意部 第1의 내용이 실려 있고<sup>12)</sup> 이어 『佛說八關齋戒

10) 木村清孝, 「新資料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5卷 第1號(印度學佛教學會, 1986. 12), pp. 126~131 참조.

11) 木村清孝, 뒷논문, pp. 126~129.

12) 원래 이 부분은 끝에 “西明寺沙門 道世跋”이라고 적어 마치 『법원주림』의 跋文과 같이 보이기 쉬우나 실제로는

『秘密求生淨土心要』라는 題下에 본문이 실려 있다. 본문의 내용은 먼저 八關齋戒名에 대하여 적은 뒤 八關齋戒의 실행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어서 『법원주림』 권87~89의 내용을 選擇, 增補, 訂正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글의 말미 부분에 10매의 판각된 시왕판화를 첨부하였다. 시왕판화의 판본은 세로 23.6cm, 가로 14.2cm로 『여래행적』에 실린 다른 版型에 비하여 세로가 조금 길고 가로가 조금 짧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다른 판들과 달라 보이지만 『팔관재심요』와 동일하게 “戒文”이란 版心으로 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판각하여 엮은 것으로 본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이 시왕판화는 『팔관재심요』에서 언급하고 있는 齋日에 관한 내용을 도상화한 일종의 變相圖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정한 계획 아래 판각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시왕판화에 이어 「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을 비롯하여 모두 7편의 단문을 수록하여 『팔관재심요』의 전체분량은 모두 38면에 이른다. 그런데 7편의 글 가운데 「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은 그 앞에 실린 『석가여래행적송』의 저자인 雲默和尚 無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팔관재심요』와 무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팔관재심요』 이하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 및 6편의 단문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戒文”이라는 동일한 版心과 일련의 版數가 표시되어 있어 처음부터 함께 엮은 것으로 사료된다.

### Ⅲ. 十王版畫의 形式과 樣式

#### 1. 形式

시왕판화는 화면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획하여 윗부분에는 ‘○○王殿’이라는 표기와 贊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시왕의 심판광경과 지옥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10매 가운데 제1·3·5·10왕도의 좌변 또는 우변에는 각 판을 시주한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시왕판화의 贊과 판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秦廣大王圖(도 1-①)

初一日 伏遇善惡童子殿下 念南無定光佛一千遍 不墮刀山地獄  
 聞說刀山不可攀 嵯峨 嶮峻見心酸 遇逢齋日勸修福 免見前途惡業牽  
 (초하루에는 선악동자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南無定光佛을 일천번 염하면 도산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듣건대 도산은 오를 수 없다 하니, 울쭉불쭉 힘준함은 마음을 아프게 하네. 재일을 맞이하여 정성스레 복을 닦으면, 앞날에는 악업에 이끌림을 면하리라.)

아래의 장면은 사람이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에 망자를 심판하는 진광대왕전의 모습을 그린 것이

『법원주림』 卷88 述意部(大正藏 3, pp. 926~927)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후 끝에 道世跋이라고 적었을 뿐이다.

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을 向左側 상단에서 向右側 하단으로 비스듬히 이등분한 뒤 오른쪽(향우)에는 진광대왕이 책상 앞에 앉아 오른손으로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오른쪽에는 판관이 공수의 자세로 서 있고 왼쪽에는 仰髮의 옥졸이 긴 창을 들고 서 있다. 왕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커다란 가리개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관을 쓰고 소매가 넓은 관복을 착용하였다. 대왕의 앞쪽에는 진광대왕이 주재하는 刀山地獄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도산지옥은 날카로운 칼로 이루어져 있어 그곳에서는 亡者가 온몸이 칼로 베이는 고통을 당하는데 주로 칼이나 몽둥이로 남을 괴롭힌 자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 날카로운 칼날이 줄지어 서 있는 산속에는 옥졸이 손에 몽둥이같은 것을 들고 죄인을 쫓아가고 죄인은 넘어 질듯 도망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산의 아랫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주로 양각으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음각으로 대담하게 묘사하였으며 화면 윗부분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② 初江大王圖(도 1-②)

初八日 伏遇太子殿下界 念南無藥師琉璃光佛一千遍 不墮鑊湯地獄  
勸君勸念藥師尊 免向鑊湯受苦辛 落在彼中何年出 莫教惡道轉沈淪

(초여드레에는 태자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南無藥師琉璃光佛을 일천번 염하면 확당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니 약사님을 정성스레 염하면, 확당지옥에 빠져 고통받지 않으리라. 그곳에 떨어지면 언제 나 나오리오, 악도에 빠져 고통받지 않도록 가르치라.)

초강대왕은 初江의 강변에 관청을 세우고 亡者가 奈河를 건너는 것을 감시하는 왕으로 亡人 二七日의 일을 주재하며 확당지옥을 다스린다고 한다. 초강대왕은 책상 앞에 앉아 오른손으로 책상에 놓인 종이 위를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 옆에는 판관이 왕이 가르키는 곳을 쳐다보며 서 있는데, 왕의 뒤에는 가리개가 높게 세워져 있다. 책상 앞쪽에는 천녀인 듯한 인물과 홀을 든 판관이 왕을 향하여 서 있다.

아래의 지옥장면은 초강왕이 주재하는 확당지옥을 묘사하였다. 『觀佛三昧海經』에 의하면 확당지옥은 부처님의 禁戒를 헐고 살생하여 제사하며, 고기를 먹기 위하여 산과 들을 불태워 중생을 손상하고 해치며 축생을 산 채로 삶거나 불로서 태운 사람이 떨어지는 지옥으로서, 뜨거운 가마솥에 빠졌다 나왔다 하는 고통을 항하모래수처럼 반복하게 된다고 한다.<sup>13)</sup> 지옥 장면은 옥졸이 죄인을 창끝에 꿰어 들고 활활 타오르는 불속으로 막 집어던지려 하고 있고 그 옆에는 결박당한 채 앉아 있는 죄인과 使者인 듯한 인물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불 속에는 또 다른 죄인들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 장면은 특히 使者와 창끝에 꿰인 죄인, 불속에 갇힌 죄인의 모습을 음각수법으로 표현하여 매우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왕의 심판광경과 아래의 지옥장면은 모두 한 평

13) 『觀佛三昧海經』 卷第5 觀佛心品 第4 (大正藏 15, p. 671) ; 『한글대장경』 72 (pp. 445~446).

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왕과 그 옆의 관관이 화면의 향좌측을 향하고 그 앞의 인물들이 향우측을 향하고 있어 아래의 지옥장면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준다.

### ③ 宋帝大王圖(도 1-③)

十四日 伏遇司命殿下界 念南無賢劫千佛一千遍 不墮寒冰地獄

獄中最苦是寒冰 到彼如何救得君 但念諸佛求功德 必向人天好處生

(십사일에는 사명계서 하계함을 비옵는데 南無賢劫千佛을 일천번 염하면 한빙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곳은 한빙지옥이니, 그곳에 도달하면 어찌 자네를 구할 수 있으리요. 여러 부처를 염하여 공덕을 구한다면, 반드시 人天으로 향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리.)

송제대왕은 亡人 三七日의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 大海의 東南 沃焦石 밑의 대지옥에 거주하면서 주로 사람들이 저지른 邪淫의 일을 다스린다고 한다. 그림은 송제대왕이 주재하는 한빙지옥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윗부분에는 왕의 심판장면을, 아랫부분에는 지옥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송제대왕은 가리개를 배경으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다른 왕들과는 달리 책상의 앞쪽에 앉아 아래의 지옥장면을 내려보고 있다. 책상 뒤에는 使者가 무엇인가를 쓴 보따리를 들고 서 있고 왕의 왼쪽에는 관관이 왕에게 무엇인가를 아뢰며 서 있다. 여기에 표현된 한빙지옥은 寒地獄이라고도 하며, 『관불삼매해경』에 의하면 팔방이 얼음산으로 되어있어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자로서 겁탈하며 무도하고 도적질하며 박탈하고 중생을 얼어죽게 한 죄를 지은 사람이 罪報로 죽은 후에 얼음산 위에 태어난다고 한다.<sup>14)</sup> 지옥장면은 왕의 심판장면과 구분하려는 듯 음각수법을 이용하여 구획한 뒤, 향우측에는 옥줄이 향아리를 쳐들어 아래에 결박당한 채 앉아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얼음을 쏟아붓고 있으며 향좌측에는 칼날이 꽃힌 담장을 일부 묘사하였다. 그리고 제일 아래부분에는 역시 음각수법으로 구름같은 것을 표현하여 마치 밖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五官大王圖(도 1-④)

十五日 伏遇五道將軍殿下界 念南無本師阿彌陀佛一千遍 不墮劍樹地獄

聞說彌陀福最彊 推殘劍樹得消亡 自作自招還自受 莫待臨時手脚忙

(십오일에는 오도장군계서 하계함을 비옵는데 南無本師阿彌陀佛을 일천번 염하면 검수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듣건대 미타불은 복이 가장 강하다 하나, 검수 속으로 밀려 떨어지면 소멸되리라. 자신이 저지르고 자신이 불러들인 것은 다시 자신이 받으니, 때가 되어 손과 발이 바쁘지 않도록 하라.)

오관대왕은 亡人 四七日의 일을 맡아보는 왕으로서 세 강 사이에 큰 궁전을 짓고 중생들의 妄語

14) 『觀佛三昧海經』 卷第5 觀佛心品 第4 (大正藏 15, p. 670) ; 『한글대장경』 72 (pp. 438~449).

의 죄를 다스린다. 業秤에 사람들의 죄업을 달아 그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리기도 한다.

지옥장면은 오관대왕이 주관하는 검수지옥에서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화면의 상부에는 오관대왕이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판관이 왕에게 무엇인가를 아뢰는 듯한 자세로 서 있으며 그 옆에 긴 창을 든 사자가 호위하듯 서 있다. 화면 하부에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검수지옥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래쪽에는 鋸齒紋으로 가지런히 검을 묘사하고 윗쪽에는 검수를 표현한 듯 칼날같이 뾰족한 가지의 나무를 표현하였다. 그 아래에는 옥졸에 의해 검수 속으로 던져진 죄인이 엮어져 있고 검수 밖에는 옥졸이 죄인을 끌어다 숲속으로 던지려 하고 있다. 검수지옥은 劍林地獄이라고도 하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자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칼과 막대로 사람을 해친 중생이 죽어 떨어지는 지옥이다. 이곳에서는 한량 없는 칼날이 뼈를 깎고 살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며 鐵犬이 달려드매 나무에 오르지만 나무끝에 오르기도 전에 몸은 부서져서 먼지와 같이 된다고 한다.<sup>15)</sup> 이 장면은 다른 왕의 장면에 비하여 음각기법이 많이 사용되어 흑백의 대비가 뚜렷한데, 특히 옥졸의 뒤와 사자의 옷에 나타난 음각기법은 거친 조각기법이 그대로 살아 있다.

#### ⑤ 閻羅大王圖(도 1-⑤)

十八日 伏遇閻摩天子殿下界 念南無地藏菩薩一千遍 不墮拔舌地獄

菩薩能除衆苦多 拔舌地獄不相和 只有今生念佛者 將來決定免波波

(십팔일에는 염마태자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地藏菩薩을 일천번 염하면 발설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고통을 많이 없애주나, 발설지옥에서는 상응하지 않는다. 단지 이승에서 염불하는 자가 있다면 장래 고통스런 소리를 면하도록 결정되리라.)

염라대왕은 시왕 중 다섯번째 왕으로 業鏡에 죄인들의 생전의 죄를 비추어 그에 따라 벌을 주는 왕이다. 그림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발설지옥에서 죄인들이 벌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였는데 다른 그림에 비하여 대왕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고 지옥장면이 작은 점이 특징적이다. 화면의 상부 중앙에는 염라대왕이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며 뒤에는 커다란 가리개가 세워져 있다. 왕의 오른쪽에는 망자들의 죄상을 적은 두루마리를 든 판관이 서 있으며 반대편에는 천녀 2인이 합장하고 서 있다. 그런데 염라대왕은 다른 왕들처럼 원유관을 쓰지 않고 천자가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 그가 명부세계의 왕임을 잘 묘사하고 있다.

아래의 지옥장면은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른쪽(향우)에는 2명의 죄인이 기둥에 결박당한 채 앉아 있으며 왼쪽에는 옥졸이 기둥에 묶인 죄인의 허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 장면은 바로 閻浮提의 동방에 위치한 鐵圍山 내 여러 지옥 중의 하나인 발설지옥의 고통을 묘사한 것으로서, 『법

15) 『觀佛三昧海經』 卷第5 觀佛心品 第4 (大正藏 15, p. 672) ; 『한글대장경』 72 (pp. 442~443).

원주립』에 의하면 “말을 함에 자애로움이 없으며 남을 비방하고 욕하며 나쁜 말로 혼란되게 하면 죽은 후에 마땅히 拔舌·洋銅·犁耕地獄에 떨어진다”고 하여 입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떨어지고 이와같은 고통을 받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6)</sup> 다리를 엇갈리게 하여 힘주어 잡아당기는 옥졸의 모습이라든지 고개가 찢혀진 망자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 ⑥ 變成大王圖(도 1-⑥)

二十三日 伏遇天大將軍殿下界 念南無大勢至菩薩一千遍 不墮毒蛇地獄

菩薩慈悲廣大多 救苦常教出愛河 九品蓮華露有分 毒蛇豈敢輒相過

(이십삼일에는 천대장군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대세지보살을 일천번 염하면 독사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살의 자비는 넓고도 크나니, 고통에서 구하고 愛慾에서 나오도록 항상 가르치네. 구품의 연화는 분에 따라 피어나니, 독사가 어찌 감히 문득 지나치리요.)

변성대왕은 冥途에서 亡人 六七日의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 오관대왕과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도 죄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 벌을 받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지옥 중에서는 독사지옥을 주재한다. 지옥장면은 화면의 향좌측에 변성대왕이 비스듬히 놓인 책상에 기대어 아래에서 벌어지는 독사지옥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책상 앞에는 판관이 허리를 굽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망자의 죄상을 왕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왕의 오른쪽에는 仰髮의 옥졸이 긴 삼지창을 들고 왕을 호위하며 서 있다. 하부에는 독사가 망자의 몸을 휘감고 있으며 망자는 이를 떨쳐내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 ⑦ 泰山大王圖(도 1-⑦)

二十四日 伏遇察命殿下界 念南無靈感救苦救難觀世音菩薩一千遍 不墮判確地獄

斬身判確沒休時 受苦那堪細說之 借問此身何處去 都緣造業不修持

(이십사일에는 찰명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南無靈感救苦救難觀世音菩薩을 일천번 염하면 좌대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몸이 베이고 방아에 찢이며 썰사이 없나니, 그 고통을 어찌 세세히 설명하리요. 이 몸이 어디로 가는 지 물어 보아도, 인연으로 인한 모든 업은 고칠 수 없다네.)

태산대왕은 원래 도교에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神인 泰山府君에서 유래하였는데, 불교에 들어와서는 일곱번째 왕으로서 염라대왕의 서기이며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여 죄인의 生處를 정하는 왕이 되었으며, 지옥 중에서는 좌대지옥을 맡고 있다.

화면 상부의 향좌측에 묘사된 태산대왕은 2명의 판관을 거느리고 책상 위에 펼쳐놓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으며, 그 앞에는 좌대지옥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좌대지옥은 『大方廣華嚴十惡品

16) 『法苑珠林』卷第7 六道篇 第四之三 地獄部(大正藏 53), “言無慈愛譏謗毀辱惡口雜亂死即當墮拔舌洋銅犁耕地獄.”

經』에 의하면 “斬肉之人墮剉確地獄”이라 하여 육신을 벤 자가 떨어지는 지옥이다.<sup>17)</sup> 화면의 하부 향우측에는 옥졸이 자신의 어깨까지 올라오는 기둥을 잡고서 오른발로 방아대를 밟으면서 죄인을 찢고 있으며 죄인은 고통을 못이겨 손을 휘저으며 버둥거리고 있다. 그 옆에는 한 명의 죄인이 고개를 돌려 차마 보지를 못하고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죄인이 방아에 찌이는 벌은 좌대지옥 이외에도 衆舍地獄 또는 8대지옥의 16벌처 중 제9벌처인 鐵磔處에서도 동일하다.<sup>18)</sup>

⑧ 平等大王圖(도 1-⑧)

二十八日 伏遇泰山府君殿下界 念南無盧舍那佛一千遍 不墮鋸解地獄  
如來功德大圓明 由如朗月出群星 但念能除多種罪 鋸解因何敢近君

(이십팔일에는 태산부군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南無盧舍那佛을 일천번 염하면 거해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래의 공덕은 매우 원만하고 밝으니, 밝은 달이 못별에서 나오는 듯하네. 단지 염불만이 능히 많은 죄를 없애니, 거해지옥이 어찌 감히 그대에게 접근하리요.)

평등대왕은 명도에 살며 亡人 百日의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八熱八寒地獄의 사자와 옥졸을 거느리는데, 공명하게 죄업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平等王 또는 平正王이라고도 한다. 염라대왕의 別名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지옥 중에서는 鋸解地獄을 다스린다.

지옥장면은 중간부분에 음각으로 언덕같은 것을 묘사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상부에는 평등대왕이 정면을 향하여 필기구가 널려 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며 왕의 오른쪽에는 스님 모습의 인물이, 왼쪽에는 판관이 시립하고 있다. 평등대왕은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등받이 양모퉁이에는 영지 모양의 장식이 있다.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는 비스듬히 나무가 서 있는데 줄기의 묘사로 보아 소나무 같으며 잎은 새발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언덕 아래는 거해지옥의 장면으로 왼쪽에는 두명의 옥졸이 형틀에 묶인 죄인을 양쪽에서 톱으로 자르고 있다. 형틀을 발로 누르며 힘주어 톱질하는 옥졸과 형틀 아래에 앉아 힘주어 톱을 잡아당기는 옥졸의 모습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결박당한 세명의 죄인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sup>19)</sup> 하단부 오른쪽에는 성벽의 일부를 표현하였고 가운데에는 음각으로 구름을 묘사하였으며 왼쪽에는 입에서 불을 뿜는 개 한마리를 묘사하였는데, 이 장면은 바로 無間地獄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장보살본원경』에 묘사된 무간지옥의 모습은

무간지옥에는 그 獄의 성이 팔만여리인데 그 성은 순철로 되어있고 높이는 일만여리이며 성 위에는 불무더

17) 『大方廣華嚴十惡品經』(大正藏 85, p. 1360).

18) 眞保亨, 『地獄極樂の繪』(毎日新聞社, 1984), p. 93.

19) 일본의 鎌倉時代 시왕도(개인소장, 原家舊本)에는 톱으로 죄인의 몸을 자르는 장면 위에 “衆舍地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중합지옥을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1862년의 華嚴寺 十王圖에서는 이 장면 위에 “鋸解地獄”이라고 적혀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거해지옥의 장면으로 생각한 듯하다.

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고르고 있습니다. … 그 옥의 둘레는 1만8천리요, 옥 담장의 높이는 1천리이며 위의 불은 아래로 타 내려오고 밑의 불은 위로 치솟으며 鐵蛇와 鐵狗가 불을 뿜으면서 옥 담장 위를 동서로 달리고 있습니다.<sup>20)</sup>

라고 하여 물론 이 그림에서처럼 개가 담장 위를 달리고 있지는 않지만, 입에서 불을 뿜는다든지 성벽을 묘사한 점은 무간지옥의 모습을 어느정도 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나라의 시왕도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돈황에서 발견된 당말오대경의 『예수시왕생칠경』 변상도의 十齋具足圖에서 볼 수 있어<sup>21)</sup>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⑨ 都市大王圖(도 1-⑨)

二十九日 伏遇四天門王殿下界 念南無藥王藥上菩薩一千遍 不墮鐵床地獄  
菩薩權名號藥王 鐵床地獄永消亡 畢竟大天常安樂 念者能教免衆殃

(이십구일에는 사천문왕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南無藥王藥上菩薩을 일천번 염하면 철상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살의 권세로운 이름은 약왕이라 부르니, 철상지옥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리. 필경 大天은 늘 안락하니, 염하는 자 여러 재앙을 능히 면하리라.)

도시대왕은 亡人 1주기의 일을 맡아보며 사람들에게 법화경 및 아미타불 조성의 공덕을 말해주는 왕이라고 한다. 都帝王 또는 都弔王이라고도 하며 철상지옥을 주재한다. 그림은 화면의 상부는 왕의 심판장면을, 하부는 철상지옥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도시대왕은 평등대왕처럼 영지 모양으로 장식한 등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관관이 왼쪽에는 사자인 듯한 인물이 시립하고 있다. 왕의 바로 앞에는 옥줄이 두발을 번갈아가면서 철상에 끼어 있는 죄인을 짓누르고 있으며, 그 옆에는 두명의 죄인이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다. 화면의 하단에는 역시 음각으로 구름을 묘사하였다.

### ⑩ 五道轉輪大王圖(도 1-⑩)

三十日 伏遇大梵天王殿下界 念南無本師釋迦牟尼佛一千遍 不墮黑暗地獄  
大聖牟尼福最深 歸依免得離貪婬 既得人身須覺悟 輒莫因循錯使心

(삼십일에는 대범천왕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南無本師釋迦牟尼佛을 일천번 염하면 흑암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大聖 석가모니는 복이 가장 깊으니, 그에게 귀의하면 탐욕과 음탕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의 몸으로 났으면 모름지기 깨달아야 하나니 문득 습관적으로 마음을 그르치게 하지 마라.)

20) 『地藏菩薩本願經』第3 觀衆生業緣品(大正藏 13, p. 780), “無間獄者 其獄城周匝 八萬餘里 城純鐵高其城純鐵高一萬里 城上火聚少有空缺 … 其獄周匝 萬八千里 獄牆高一千里悉是鐵爲 上火徹下火徹上 鐵蛇鐵狗吐火馳逐 獄牆之上東西而走.”

21) 일본 山中商會所藏 『예수시왕생칠경』 변상도와 大英博物館所藏의 『예수시왕생칠경』 변상도(S. 3961호)에서 볼 수 있다.

오도전륜대왕은 앞의 아홉명의 왕에게 차례차례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 죽은지 삼년만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아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 왕이다. 二官과 여러 獄司를 거느리고 중생의 어리석은 번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옥 중에서는 흑암지옥을 관장하는데, 흑암지옥은 18겹의 黑山과 18겹의 黑網과 18겹의 鐵床과 18겹의 鐵縵이 있는 곳이다. 『관불삼매해경』에 의하면, 佛·法·僧에게 밝히는 등불을 훔치고 부모와 스승, 어른, 和尚의 것을 도적질하며 설법하는 자를 비방하고, 또한 스승들을 훼손하며 尊卑를 기휘하지 않고 참괴할 줄 모르는 자가 태어나는 곳이라고 한다. 이 지옥에는 칼바퀴가 오르락 내리락하여 죄인의 몸을 베고 깎으며, 길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진 큰 鐵鳥가 산으로부터 날아와 죄인을 콕콕 쪼으니 그 고통이 심하여 빨리 달음질하여 밝은 데를 구하려 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sup>22)</sup> 상부에는 오도전륜대왕이 책상을 앞에 두고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으며 양옆에는 판관과 천녀가 시립하여 있다. 하부에는 몽둥이를 든 옥졸이 죄인을 쫓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배경을 음악으로 처리하였는데, 특히 음악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검게 보이는 부분은 흑암지옥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 2. 樣式的 特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왕판화는 판본의 아래부분 절반가량에 그려져 있으며 10매 모두 거의 동일한 구도를 보여준다. 즉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은 내용상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윗부분에는 시왕이 判官과 童子, 使者, 獄卒 등을 거느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장면을, 아래부분은 각 왕의 지옥에서 亡者들이 옥졸에게 벌을 받고있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제1 진광대왕도(도 1-①)와 제3 송제대왕도(도 1-③), 제4 오관대왕도(도 1-④)에서는 지옥의 장면을 화면의 오른쪽 또는 왼쪽 위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배치하여 대각선에 의해 화면을 2분하고 있어 왕의 심판 장면과 지옥장면이 보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더구나 위 그림에서는 시왕과 권속들은 양각의 선 위주로 처리한 반면 지옥장면은 넓은 부분을 음악으로 대담하게 처리하여 명부와 지옥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기법은 제10 오도전륜대왕도(도 1-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각선이 아니라 수평으로 화면의 1/2은 양각으로, 1/2은 음악으로 처리하므로써 역시 윗장면과 아래장면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의 그림들, 예를 들어 제2 초강대왕도(도 1-②)를 비롯하여 제5 염라대왕도(도 1-⑤), 제6 변성대왕도(도 1-⑥), 제7 태산대왕도(도 1-⑦), 제8 평등대왕도(도 1-⑧), 제9 도시대왕도(도 1-⑨)에서는 지옥의 장면이 바로 시왕의 책상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한다. 즉 명부에서 심판하고 있는 시왕과 지옥에서 벌을 받는 亡者가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시왕과 망자를 같은 평면상에 배치하는 수법은 중국

22) 『觀佛三昧海經』 卷第5 觀佛心品 第4 (大正藏 15, p. 670) ; 『한글대장경』 72 (pp. 439~440).

南宋代의 陸信忠筆 시왕도(도 2)에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 3, 해인사소장), 14세기의 시왕도(일본 幽玄齋소장<도 4>, 호놀룰루미술관소장<도 5>) 및 조선초기 15세기의 시왕도(도 6, 일본 入江毅夫소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의 시왕도(일본 寶性寺소장<도 7>)에 이르면 시왕의 심판장면과 지옥장면은 구름 또는 산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서로 다른 장소처럼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상의 특징은 그후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변함없이 고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제5 염라왕도와 제6 변성왕도, 제7 태산대왕도, 제9 대왕도에서는 화면의 제일 아래부분에 음각으로 구름을 표현하므로써 마치 위에서 화면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부감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화면의 공간을 확대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동시에 화면상의 장면들이 현세가 아닌 비현세적임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 高桐院에 소장된 육신충필 시왕도(9폭)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볼 수 있다. 또 시왕이 앉아있는 책상과 그 뒤에 세워져 있는 가리개의 원근법적인 처리와 비스듬히 앉아 한 구석을 응시하는 듯한 시왕의 시선이라든지(제1 진광대왕도, 제6 변성대왕도) 제3 송제대왕도, 제4 오관대왕도, 제8 평등대왕도, 제9 도시대왕도에서처럼 시왕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앞에 놓인 책상은 비스듬히 처리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향하게 한 점도 공간에 깊이감을 주는 한 요소이다.

그리고 지옥장면에서는 여러가지 장면들이 함께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장면, 예를 들어 독사지옥에서는 독사에게 고통을 당하는 죄인을 간단하게 처리한다든지(도 1-⑥) 거해지옥에서는 톱으로 죄인을 썰는 장면만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등(도 1-⑧) 지옥장면을 하나로 압축,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 역시 남송대 陸信忠筆의 시왕도(도 2)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물론 여기에 표현된 지옥과 육신충필 시왕도에 묘사된 지옥장면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 내용 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방법은 서로 공통된다. 따라서 시왕판화는 구도면에서 볼 때 중국 남송대 또는 고려말~조선초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후술하겠지만 시왕판화의 도상이 중국 남송대 이전의 도상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판화의 刻法과 인물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판화는 대부분 목판화로서 고려시대~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어 시대에 따른 각법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전적의 간행이 활발하였고, 그외 國刊板은 물론 官板, 私家板에 이르기까지 전적의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잦은 외침과 내란에 의해 많은 전적이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는 전적 중 변상도가 있는 것은 11세기의 『寶篋印陀羅尼經』(1007년, 도 8), 『御製秘藏詮』(1011년~1083년, 도 9) 판화를 비롯하여 12세기의 『周本大方廣佛華嚴經』(1096년~1105년, 도 10), 『四十二手眞言神妙章句』 변상도, 13세기의 『大方廣佛華嚴經』, 『預修十王生七經』 변상도, 14세기의 『金剛般若波羅蜜經』(1357년 <도11>, 1363년), 『大報父母恩重經』, 『妙法蓮華經』, 『大方廣佛華嚴經疏』(1372년, 도 12), 『佛說長壽滅罪諸童子陀羅尼經』(1378

년) 변상도 등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판화의 판각수법은 고려불화에서 볼 수 있는 유려한 각선에 의한 섬세하면서도 회화적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초기의 판화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1405년 『妙法蓮華經』(도 13), 1424년 『金剛般若波羅蜜經』, 1425년 『十六觀經』, 1434년 『三綱行實圖』, 1448년 『妙法蓮華經』(도 14), 1469년 『地藏菩薩本願經』(도 15), 1473년 『禮念彌陀道場讖法』, 1485년 『佛頂心陀羅尼經』 등의 변상도에서 보듯이 비교적 치밀하고 유려한 선의 구사가 특징이다. 그것은 조선시대 초기의 판화가 대부분 王室發願版, 刊經都監版이 주류를 이루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1504년 인수대비가 사망한 뒤 연산군이 강력한 억불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국왕의 內帑金 또는 內需司의 出材, 왕실의 私材에 의한 印經사업은 중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이후의 인경사업은 주로 사찰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16세기 이후 사찰판의 판화는 왕실 발원판, 간경도감판에 비하여 판각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일면을 보이게 된다. 당시의 사찰판은 宋本, 元本 또는 高麗本을 翻刻한 판본이 많았는데, 刻線이 굵어지고 세부가 생략되는 등 판각기술의 후퇴가 역연하다.<sup>23)</sup>

시왕판화의 판각수법은 당시 사찰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각법은 선이 끊어지고 형체가 단순화되었으며 표현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사실적인 세부표현에서 벗어나 대담한 생략과 과장, 단순한 처리를 하므로써 오히려 현대적인 감각까지 느끼게 한다. 즉 기법은 숙달되지 못했으나 거친 각법에서 나타나는 생경함이 강한 이미지를 준다. 특히 인물 표현에서는 옥졸과 죄인의 신체표현에 과장기법이 많이 보이는데 몸을 마치 분절하는 것처럼 차리한 점이라든지 W형으로 표현한 젓가슴의 모습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각법은 특히 16세기에 성행하였던 것으로서 1520년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도 16, 全羅道 樂安 金華山 澄光寺刊), 1534년 『佛說大報父母恩重經』(도 17, 全羅道 光州地 瑞石山 兜率庵刊), 1536년 『大目連經』(全羅道 高敞 逍遙山 烟起寺刊), 1570 『玉樞經』(도 18), 1574년 『預修十王生七經』(도 19, 黃海道 興栗寺刊), 1575년 『佛說阿彌陀經』(도 20, 全羅道 海南 金剛寺刊),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16세기, 도 21)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왕판화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음각기법을 많이 사용한 점이다. 지옥장면을 비롯하여 시왕과 권속들의 표현 일부에 음각기법을 사용하여 흑백이 두드러지는 강한 표현을 보여준다. 특히 음각부분의 각법은 양각에 비하여 더욱 거칠고 굵게 표현하여 대담하면서도 목관의 판각미를 한껏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음각수법은 1520년 『부모은중경언해』(도 16)의 〈乳哺養育恩圖〉(도 16-③), 〈洗濁不淨恩圖〉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1왕도와 제4왕도에서 刀山과 劍樹를 표현한 거치문은 『부모은중경언해』〈乳哺養育恩圖〉(도 16-③)의 처마라든가 〈地獄苦圖〉(도 16-④)의 성곽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판각수법의 유사성으로 볼 때 이 시왕도는 16세기 전반기

23) 千惠鳳, 「朝鮮前期 佛書版本」, 『韓國書誌學研究』, 古山千惠鳳先生定年紀念選集刊行委員會編(三省出版社, 1992), pp. 673~712.

에 판각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해준다. 또 1520년 『부모은중경언해』를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법을 보여주는 판본들이 대개 전라도에서 판각된 사실로 보아 앞에서 추정하였듯이 이 판화는 1529년 전라도 광양의 만수암에서 판각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 IV. 十王版畫 贊과 十齋日 信仰

지금까지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위에 적혀 있는 贊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기본적인 구성은,

○日에는 ○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을 일천번 염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日 伏遇○殿下界 念南無○一千遍 不墮○地獄).

라는 내용에 이어 7언절구의 贊詩가 적혀 있다. 그리고 ‘伏遇’와 ‘殿下界’의 사이에는 각각 ‘○王殿’이라 하여 아래에 도상화된 지옥장면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日에는 ○께서 하계함을 뵈옵는데 ○을 일천번 염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바로 十齋日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sup>24)</sup> 원래 齋日이란 모든 귀신이 인간의 수명을 빼앗고 질병으로 인간을 불길하게 하는 날로서 이날을 택하여 재를 지내 선을 닦고 복을 다스리면 흉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sup>25)</sup> 정해진 날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실과 식사 등을 삼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재일의 신앙적인 원형은 八關齋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팔관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8가지의 계율을 지키는 의식이다. 원시경전인 『增一阿舍經』에 의하면 보름 동안에는 8일, 14일, 15일의 삼재일이 있어 각 재일에는 사천왕이 몸소 또는 태자와 신하를 보내 누가 선이나 악을 지었는가 또는 어떤 중생이 부모, 사문, 바라문 및 어른에게 공경하는가, 어떤 중생이 보시를 좋아하고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삼매를 닦으며 경전의 뜻을 연설하고 팔관재를 지내는가를 살펴본다고 설명되어 있으며<sup>26)</sup> 이어 팔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어떤 것이 여덟가지 재법인가. 아라한처럼 마음을 가져 목숨을 마칠 때까지 죽이지 않고 해칠 생각이 없으며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또 아라한처럼 사된 생각이 없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또 아라한처럼 마음을 가져 ‘나는 목숨을 마칠때까지 음행하지 않고 사된 생각이 없이 항상 梵行을 닦아 몸이 향기롭고 깨끗하며, 오늘은 음행하지 않는 계율을 가져 내 아내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여자도 생각하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고. 또 아라한처럼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정성스러워 남을 속이지 않으며 지금부터 내일까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며. 또 아라한처럼 술을 마시지 않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며 부처님의 계율을 가져 범하지 않는 것이며. 또 아라한

24) 이하 십재일에 관한 내용은 한보광,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장의례의 역할」, pp. 92~98의 부분을 일부 참고함.

25) 『大智度論』卷13 (大正藏 25, p. 160).

26) 『增一阿舍經』卷16 高幢品 第二十四之三(六) (大正藏 2, pp. 624~626).

처럼 목숨을 마칠때까지 齋法을 어기지 않고 항상 때를 맞추어 먹되 조금 먹고 만족할 줄을 알아 맛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또 아라한처럼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않는다. 이른바 높고 넓은 평상이란 금, 은, 상아로 만든 평상 혹은 뿔로 만든 평상, 부처자리, 벽지불자리, 아라한자리, 스승자리이니 아라한은 이런 여덟가지 자리에 앉지 않는다. 또 아라한처럼 향과 꽃과 연지와 분으로 장식하지 않는 것이다.<sup>27)</sup>

이상은 석존 在世時부터 在家者들이 날을 정하여 그날 하루동안 만이라도 八關齋戒를 지키는 의식이 행해져 왔음을 보여주는데, 팔관재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3세기 중엽 吳 月氏國의 支謙이 번역한 『佛說齋經』<sup>28)</sup>, 劉宋 沮渠京聲 譯의 『佛說八關齋經』<sup>29)</sup>, 역자가 알려지지 않은 『優婆夷墮舍迦經』<sup>30)</sup> 등의 경전이 전한다. 그런데 위의 경전에서는 모두 佛法齋는 매달 여섯번, 즉 8일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에 매번 여덟가지 계율(살생, 탐욕, 음행, 거짓말, 술, 사치를 금하며 높은 평상에 오르는 일을 삼가고 정오 이후에는 식사후에는 식사를 금하는 것)을 지켜야 무수한 재물을 얻어 수명이 또한 수십억년으로 길어진다고 하여 齋戒와 그로 인하여 얻게되는 공덕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인용한 『증일아함경』의 팔관재와 동일하지만 재계를 지켜야 하는 날을 한달에 6번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다르다.

한편, 齋日에 대한 관념은 중국으로 건너와 재가자 뿐 아니라 출가자들도 동참하는 의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八關齋會 또는 八關會라 하여 鎮護國家의 뜻을 내포한 국가의식으로 까지 발전하였으며<sup>31)</sup>, 특히 고려시대에 팔관회가 매우 성행하였다.<sup>32)</sup>

27) 『增一阿含經』卷16 高幢品 第二十四之三(六)(大正藏 2, p. 625), “何爲八關齋法 持心如真人 盡形壽不殺無有害心 於衆生有慈心之念 … 如阿羅漢無有邪念 盡形壽不盜好喜布施 … 如是真人 我今盡形壽不淫 無有邪念 恒修梵行身體香潔 今日持不淫之戒 亦不念已妻 復不念他女人想 至明日清旦無所觸犯 … 如阿羅漢不飲酒心意不亂持佛禁戒無所觸犯 … 如阿羅漢盡形壽不壞齋法 恒以時食少食知足不著於味 … 如阿羅漢恒不在高廣之床上坐 所謂高廣之床 金銀象牙之床 或角床佛座 支佛座阿羅漢座諸尊師座 是時阿羅漢不在此八種座 … 如阿羅漢不著香華脂粉之飾。” 한글번역은 동국대학교 역경원간, 『한글대장경』 8 아함부, pp. 299~300을 참고하였음.

28) 『佛說齋經』 (大正藏 1, pp. 910~912); 『한글대장경』 8 (pp. 585~589).

29) 『佛說八關齋經』 (大正藏 1, p. 913); 『한글대장경』 8 (pp. 595~596).

30) 『優婆夷墮舍迦經』 (大正藏 1, p. 912); 『한글대장경』 8 (pp. 591~594).

31) 우리나라의 팔관회에 관해서는 里道德雄, 「朝鮮佛教における八關齋會考—その歴史的展開」, 『西義雄博士頌壽記念論集. 菩薩思想』(大東出版社, 1981), pp. 275~297 및 同, 「高麗佛教に於ける八關會の構造」, 『東洋學研究』 17(1982), 洪潤植, 『韓國佛教儀禮の研究』(隆文館, 1976), pp. 140~143 참조.

32) 안계현교수는 우리나라의 팔관회에 대하여 “본시 팔관회는 재래의 고유신앙이 신라 진흥왕때에 있어서 화랑의 제정과 때를 같이하여 불교와 습합되어 신시대적인 호흡을 갖게된 것이요, 그것이 弓裔에 와서는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군정적 結社의 소산으로 의식적 지향을 보게된 것인데, 고려의 팔관회는 이 궁에서 계승된 것이었다. 태조는 매년 仲冬에 이것을 말하였고 팔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所以事天炁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라고 십훈요 중에 보이는, 즉 팔관회는 불교와 토속신앙을 혼합한 一大年中綜合祭다”고 하여, 팔관회가 원래의 팔관재와는 무관하게 변질되었음을 밝혔다. 安啓賢, 『韓國佛教史研究』(同和出版公社, 1982), pp. 165~166.

십재일은 바로 이러한 팔관제가 확대 발전한 것으로서 중국 唐代에 이르러 확립된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십재일이란 한달 중 열번, 즉 1일·8일·14일·15일·18일·23일·24일·28일·29일·30일에 持戒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언급한 대표적인 경전인 『地藏菩薩本願經』에서는,

만약 미래세의 중생이 매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의 결집에 그 경중을 정하나니 남염부리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방자한 뜻으로 살생, 절도, 사음, 망어 등 백천가지 죄를 짓는 일이겠느냐. 만약 능히 이 십재일에 佛·菩薩 및 모든 聖賢의 형상 앞에서 이 경을 읽으면 동서남북으로 백유순 안에 모든 재앙이 없으며 집안 식구들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간에 현재와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를 여월 것이며, 매달 이 십재일마다 한번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에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고 의식이 풍족하리라.<sup>34)</sup>

라고 하여 매월 10번의 정해진 날짜에 불·보살 및 성현의 형상 앞에서 『지장보살본원경』을 읽으면 모든 재앙과 橫厄과 질병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곧 십재일과 지장보살신앙을 관련짓는 것으로, 『지장보살본원경』이 당말오대경에 성립된 것을 생각해볼 때<sup>35)</sup> 『불설팔관재경』 등에서 말한 한달 여섯번의 재일이 어느 때가 열번으로 확대된 후 이 경전이 성립될 즈음 지장신앙과 관련되어 내용 중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그런데 宋代의 宗鑑이 集錄한 『釋門正統』(1237년) 卷4에는,

33) Michel Soymié는 십재일은 원래 6일간의 재일을 확장, 모방하여 도교에서 먼저 허용하였던 신앙의식으로서 불교에서는 6재일과 함께 10재일을 택하였다고 말한다. Michel Soymié, “Les Dix Jours de Jeûne de Kṣitigarbha,” *Hautes études orientales 10: Contributions aux études sur Touen-Houang*, (Geneve-Paris : Paris Librarie Droz, 1979), p. 135.

34) 『地藏菩薩本願經』 卷6 如來讚嘆品(大正藏 13, p. 783 中), “若未來世衆生 於月一日八日十四十五十八日二十三二十四二十八日二十九三十日 是諸日等 諸罪結集 定其輕重 南閻浮提衆生舉止動念 無不非業 無不非罪 何況恣情 殺生竊盜邪淫妄語 百千罪狀 能於是十齋日 對佛菩薩諸賢聖像前 讀是經一遍 東西南北百由旬內 無諸災難 當此居家 若長若幼 現在未來百千歲中 永離惡趣 能於十齋日 每轉一遍 現世令此居家 無諸橫病 衣食豐溢.” 한글번역은 한길로 譯, 『原本解釋 地藏經』(寶蓮閣, 1980), pp. 175~176을 참고하였음.

35) 『地藏菩薩本願經』은 『佛說大乘大集地藏十輪經』, 『占察善惡業報經』과 함께 地藏三部經의 하나로서 上下 2卷 13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7세기경 于闐國(Khotan)의 實叉難陀가 漢譯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세에 이르러 僞經說이 제기되고 있다. 즉 松本文三郎은 이 경전이 開元錄과 麗元藏 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明藏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장경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실차난타의 번역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眞鍋廣濟는 이에 대하여 8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함으로써 적어도 송대에는 이미 이 경전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다(眞鍋廣濟, 『地藏菩薩の研究』, 東京 : 三密堂書店, 1960, pp. 83~97). 둔황에서는 당말오대에 이르러 지장보살도가 다수 조성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당말오대경에는 대체로 이 경전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

36) 한보광교수는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설하는 십재일의 특성을 ① 지금까지의 팔관제에서는 戒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기에서는 本經의 讀誦을 중시하고 있는 점, ② 십재일을 지킴으로써 오는 과보에 대하여 대단히 현세이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 ③ 십재일 모두가 지장보살과 관계가 있으며 날짜마다 다른 佛名號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어 십재일신앙은 지장신앙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한보광, 앞논문, p. 93).

世間の節令 중에는 또 十齋日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 十齋經 또는 寶積經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월 齋日이 있어 1, 8, 14, 15, 18, 23, 28, 29, 30일이다. 각 佛菩薩의 名號를 부르면 福을 구하고 罪를 면할 수 있다.<sup>37)</sup>

라고 하여 십재일이 『十齋經』과 『寶積經』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경전들은 아마 둔황에서 발견된 『大乘四齋日』과 『地藏菩薩十齋日』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sup>38)</sup> 이들은 모두 재일에 관하여 설명한 짧은 글로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에는 ○께서 하계하시니 ○을 염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며 재를 지키면 ○겁의 죄를 없앨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이 두 경전의 성립시기는 정확지 않지만 대개 9~10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9)</sup>

그런데 『지장보살십재일』과 『대승사재일』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달 중 정해진 열번의 날에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地藏菩薩本願經을 읽으면 재앙이 없어진다고 하는 『지장보살본원경』의 내용과는 달리, 십재일의 날짜마다 각각 念하는 불·보살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표 1〉 참조). 즉 10번의 재일을 모두 지장보살과 관련시켜 논하고 있는 『지장보살본원경』에 비하여 각 날짜에 각각 이 세상에 내려오는 존상과 염불대상이 되는 존상을 결부시키므로써 한층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初一日에는 定光如來, 初八日에는 藥師琉璃光佛 등 10일간의 날짜마다 念하는 불·보살의 명칭이 정해져 있으며 지장보살은 24일에 念하는 보살로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장신앙에서 비롯된 십재일신앙이 점차 지장신앙과는 무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에서도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재일에 따라 각각 염하는 불·보살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광여래를 염하며, 8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유리광여래를 염하며, 14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현겁천불을 염하며, 15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며, 18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염하는데, 단지 음식공양 뿐 아니라 명호를 불러야만 반드시 四惡道の 고통을 받지않는다. 23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세지보살을 염하며 24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28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비로자나불을 염하며 29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약왕보살을 염하며 30일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석가모니불을 염한다. 이와같이 십재를 지켜 익히고 1년 내에 능히 10계를 지키며 10존을 염하면 질병과 五病

37) 『釋門正統』卷4(卍續藏 130, p. 810), “世間節令其中 又十齋日者 本云十齋經 一云寶積經 每月有齋日謂一八十四五十八二十三二十四二十八二十九三十也 令各持佛菩薩號 乞福滅罪.” 한보광, 앞논문, p. 94에서 재인용.

38) 한보광, 앞논문, p. 93.

39) 『지장보살십재일』은 현재 중국본과 티벳본의 2종이 전하고 있는데, 그중 티벳본은 玄奘譯 『金剛般若婆羅密多經』(大正藏 8, p. 750)의 뒷면에 手寫本으로 기재되어 있어 9세기말로 추정되며, 중국본은 S. 5892本에 “甲戌三界寺”에서 조성하였다는 발문이 있어 삼계사의 창건연대(830년~840년)와 관련하여 854년 또는 914년, 974년의 갑술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ichel Soyminié, 앞논문, p. 137.

鬼를 없애 백년을 살 수 있다.<sup>40)</sup>

그런데 이 경전은 『예수시왕생칠경』과 마찬가지로 唐代 成都府 大聖慈寺의 沙門인 藏川이 찬술했다고 전해지나, 후에 일본에서 室町시대 또는 平安시대 말기경 『예수시왕생칠경』에 근거하여 만든 偽經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sup>41)</sup> 십재일신앙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더구나 이 경전이 근거한 『예수시왕생칠경』에는 십재일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다만 十齋, 즉 10명의 왕에 대하여 지내는 預修十王齋에 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발심인연시왕경』에 보이는 십재일의 내용은 아마도 『지장보살십재일』 또는 『대승십재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재일신앙은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비롯되었으며 『地藏菩薩十齋日』, 『大乘四齋日』 등에 이르면 각 재일에 염하는 불·보살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등 발전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地藏菩薩十齋日』과 『大乘四齋日』, 『八關齋心要』 十王版畫의 齋日·願佛·地獄名稱

齋日	『地藏菩薩十齋日』		『大乘四齋日』		『八關齋心要』 十王版畫	
	願佛	地獄	願佛	地獄	願佛	地獄
初一日	定光如來	刀槍地獄	定光如來佛	刀槍地獄	定光佛	刀山地獄
初八日	藥師琉璃光佛	糞尿地獄	藥師琉璃光佛	粉草地獄	藥師琉璃光佛	湯地獄
十四日	現劫千佛	湯地獄	現劫千佛	湯地獄	現劫千佛	寒冰地獄
十五日	阿彌陀佛	寒冰地獄	阿彌陀佛	寒冰地獄	阿彌陀佛	劍樹地獄
十八日	觀世音菩薩	劍樹地獄	觀世音菩薩	劍樹地獄	地藏菩薩	拔舌地獄
二十三日	盧舍那佛	餓鬼地獄	盧舍那佛	餓鬼地獄	大勢至菩薩	毒蛇地獄
二十四日	地獄菩薩	斬斫地獄	地藏菩薩	縊折地獄	求苦觀世音菩薩	剉碓地獄
二十八日	阿彌陀佛	鐵鋸地獄	阿彌陀佛	鐵鋸地獄	毘盧舍那佛	鋸解地獄
二十九日	藥王藥上菩薩	磨地獄	藥王藥上菩薩	石磨地獄	藥王藥上菩薩	鐵床地獄
三十日	釋迦牟尼佛	灰何地獄	釋迦牟尼佛	寒冰地獄	釋迦牟尼佛	黑暗地獄

40) 『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卍續藏 150, p. 772), “一日至心進念定光佛 八日至心進念藥師琉璃光如來 十四日至心進念賢劫千佛 十五日至心進念阿彌陀佛 十八日至心進念地藏菩薩 從旦至食供養稱名必定不受四惡道苦 二十三日至心進念勢至菩薩 二十四日至心進念觀世音菩薩 二十八日至心進念毘盧遮那如來 二十九日至心進念藥王菩薩 三十日至心進念釋迦牟尼佛 如是十齋 修習一年能持十戒 能念十尊 能除疾病五病鬼使得壽百年.”

41) 眞鍋廣濟, 『地藏菩薩の研究』, p. 129.

이제 『지장보살십재일』, 『대승십재일』의 齋日, 願佛 및 地獄名稱을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의 찬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십재일의 첫번째인 1일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장보살십재일』: 一日童子下念定光如來不塗<sup>42)</sup> 刀槍地獄<sup>43)</sup> 持齋除罪四十劫  
A-1
B-1

『대승사재일』: 一日童子下念定光如來除齋<sup>44)</sup> 除罪四十劫不墮刀槍地獄  
A-2
B-2

『팔관재심요』: 初一日伏遇(秦廣王殿)善惡童子殿下界念南無定光佛一千遍不墮刀山地獄  
A-3
B-3

여기에서 보듯이 두 경전이나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의 贊은 십재일에 얽해야 할 불·보살의 명호(A-1, A-2, A-3), 각 齋日에 따른 지옥의 명칭(B-1, B-2, B-3) 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날에 특정한 불·보살을 얽해야 한다는 점이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개념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의 찬문은 분명히 『지장보살십재일』과 『대승사재일』 등의 십재일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십재일의 10일을 10명의 왕에 맞추어 결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하나 주목되는 점은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齋日의 왕과 願佛, 지옥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불 및 지옥명칭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에 언급된 십재일의 내용이 일찍이 알려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에 언급된 십재일의 내용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현재 알려진 자료 중 이 시왕판화에 언급된 시왕과 원불, 지옥의 명칭이 일치하는 예는 강희26년(1687) 묘향산 보현사에서 개관된 『예수시왕생칠경』에 첨부되어 있는 「十殿閻君聖誕日期玉匣記」<sup>45)</sup>와 『釋門儀範』(1931년) 下篇 「諸聖指定日」<sup>46)</sup>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예는 모두 이 시왕판화보다 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자료는 아니지만 이 시왕판화의 십재일 내용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이 중국 大足石窟의 지옥변상이다.

42) ‘不墮’의 誤記인 듯하다.

43) ‘刀槍地獄’의 誤記인 듯하다.

44) ‘持齋’의 誤記인 듯하다.

45) 『玉匣記』는 시왕의 聖誕日에 대하여 언급한 중국 道教經典 중의 하나인데, 1687년 普賢寺에서 개관된 「十殿閻君聖誕日期玉匣記」는 道藏本 玉匣記 또는 流布本 玉匣記와는 다른 것으로 여기에서 시왕의 성탄일을 차용하고 당시에 알려져 있던 글에서 각 왕에 지옥을 배치하는 모티프를 차용한 뒤, 민간에서 유행하던 『壽生經』의 내용까지 덧붙여 민간신앙용으로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道藏本 玉匣記 또는 流布本 玉匣記에 대해서는 吉岡義豊, 「中國民間の地獄十王信仰について」, 『道教の研究』(五月書房, 1989), pp. 251~259 참조.

46) 安震湖編, 『釋門儀範』(下)(法輪社 前刊商會, 1983), pp. 300~301.

大足石窟은 四川省 重慶市에서 서쪽으로 1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굴로서 唐宋代의 불교·유교·도교조상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그중 大佛灣 第20龕에는 높이 14m, 폭 20m에 달하는 남송대(1127~1279)의 지옥변상이 조각되어 있다(도 22). 지옥변상은 모두 4층으로 나뉘어 조각되어 있는데 제1층과 2층에는 여러가지 지옥의 양상이 묘사되어 있고(도 22-①; 1층-8지옥, 2층-10지옥), 제3층과 제4층의 중앙에 걸쳐 보관을 쓴 지장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있다. 제3층에는 왼쪽(向右)부터 現報司官, 제1왕~제10왕, 速報司官이 책상에 앉아있고 그 사이에 동자와 판관이 侍立하고 있으며(도 22-②) 시왕의 위로 제4층에는 시왕의 本地佛에 해당하는 十佛이 조각되었다. 이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sup>47)</sup>

<표 2> 大足石窟 地獄變相 배치도

十						地	佛						← 제4층
速報司官	轉輪大王	都市大王	平等大王	泰山大王	變成大王		藏	閻羅大王	五官大王	宋帝大王	初江大王	秦廣大王	現報司官
黑闇地獄	鐵床地獄	鉅解地獄	剉碓地獄	毒蛇地獄	拔舌地獄	劍水地獄		寒冰地獄	鑊湯地獄	刀山地獄			
糞池地獄	鑿戟地獄	鐵輪地獄	鑊湯地獄	舍利塔	刀船地獄	餓鬼地獄	阿鼻地獄	截膝地獄				← 제1층	

그런데 2층에 표현된 10지옥의 각 지옥장면 위에는 ‘○日念○佛一千遍 不墮○地獄’이라고 명기한 후 이어 다음과 같은 贊이 새겨져 있어 주목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48)</sup>

1. 刀山地獄：每月一日念定光佛一千遍 不墮刀山地獄  
 贊曰 聞說刀山不可攀 嵯峨嶮峻使心酸 遇逢齋日勤修福 免見前程惡業牽  
 (嶮)(見) (慙) (途)
2. 鑊湯地獄：日念藥師琉璃光佛一千遍 不墮鑊湯地獄  
 贊曰 勸君勤念藥師尊 免向鑊湯受苦辛 落在彼中何時出 早修淨土脫沈淪  
 (勸) (年)(莫教惡道轉)

47) 黎方銀, 『大足石窟藝術』(重慶出版社, 1990), p. 105에서 전재.

48) 대족석굴 찬문의 내용은 黎方銀, 앞책, pp. 109~111 및 劉長久·胡文和·李永翹, 『大足石刻研究』(成都: 四川省社會科學出版社, 1985), pp. 486~487 참조. 인용문의 괄호 안의 내용은 『判官雜記』의 贊 가운데 대족석굴과 다른 부분을 명기한 것임.

3. 寒冰地獄：日念賢劫千佛一千遍 不墮寒冰地獄  
 贊曰 就中最苦是寒冰 蓋因裸露對神明 但念諸佛求功德 罪業消除好處生  
 (獄) (到彼如何救得君) (必向人天)
4. 劍樹地獄：○○○○○○○○千遍 不○劍樹地獄  
 贊曰 聞說彌陀福最強 ○齊劍樹○消亡 自作○○還自受 莫得○時手○○  
 (疆)(推殘) (得) (自招) (待臨) (脚忙)
5. 拔舌地獄：○○○○如來一千遍 不墮拔舌地獄  
 贊曰 拔舌更使鐵牛耕 萬種凌持不暫停 要覓閻王親叫問 持念地藏一千聲  
 (菩薩能除衆苦多 拔舌地獄不相和 只有今生念佛者 將來決定免波)
6. 毒蛇地獄：日念大勢至如來一千遍 不墮毒蛇地獄  
 贊曰 菩薩慈悲廣大 救苦常教出愛河 九品蓮花露有分 毒蛇豈敢便相過  
 (輒)
7. 剉碓地獄：日念觀音菩薩千遍 不墮剉碓地獄  
 贊曰 斬身剉碓沒休時 都緣造惡不修持 觀音哀愍衆生苦 免離地獄顯慈悲  
 (受苦那堪細說之 借問此身何處去 都緣造業不修持)
8. 鋸解地獄：日念盧舍那佛千遍 不墮鋸解地獄  
 贊曰 如來功德大圓明 由如朗月出群星 但念能除多種罪 鋸解無由敢問君  
 (因何)(近)
9. 鐵床地獄：日念藥王藥上菩薩千遍 不墮鐵床地獄  
 贊曰 菩薩眞名號藥王 鐵床更用火燒烓 直饒造業如山重 但念眞名免衆殃  
 (權) (地獄永消亡 畢竟大天常安樂 念者能教)
10. 黑暗地獄：日念釋迦牟尼佛一千遍 不墮黑暗地獄  
 贊曰 持齋事佛好看經 積善冥司注姓名 更誦彌陀一千遍 自然黑暗顯光明  
 (大聖牟尼福最深 歸依免得離貪婬 既得人身須覺悟 輒莫因循錯使心)

위에서 보듯이 贊의 내용은 현재 박락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지옥의 명칭, 각 날짜에 얽하는 불·보살의 명칭 및 7언절구의 찬시가 『팔관재심요』시왕관화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분, 예를 들어 제5 발설지옥, 제7 좌대지옥, 제9 철상지옥, 제10 흑암지옥의 贊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7언절구 찬시를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 독창적인 문장을 삽입해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대족석굴이 근거한 贊과는 또 다른 贊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직 이외의 자료가 알려지지 않은 이상 대족석굴과 『팔관재심요』시왕관화의 贊은 같은 곳에서 근거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팔관재심요』의 찬문이 대족석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위의 두 경우는 내용에서는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나 또는 조각과 판각이라는 차이점으로 볼 때 직접적인 영향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아마도 『팔관재심요』가 10세기말~11세기초 또는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경에 찬술되었고 대족석각이 남송대의 작품이라는 점에 의해 볼 때, 남송대 또는 그 이전에 널리 알려져있던 贊이 대족석굴의 조성 당시 지옥변상에 적용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이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그러한 내용이 전

해져 『팔관재심요』의 시왕판화와 같은 도상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팔관재심요』의 시왕판화는 남송대 또는 그 이전의 판본을 기본으로 하여 1529년 우리나라에서 版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V.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통용되는 시왕과 해당지옥의 배치가 어디서 근거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만 1687년 보현사에서 개관된 『玉匣記』가 가장 이른 예로서 알려져 왔을 뿐이다. 그런데 1529년에 판각된 본 『八關齋心要』의 시왕판화는 시왕과 해당지옥과의 배치를 보여주는 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로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본 시왕판화는 『預修十王生七經』에 근거하여 성립된 일반적인 시왕도와는 달리 십재일과 시왕신앙이 결합된 도상으로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본 시왕판화는 도상적으로는 대족석굴 지옥변상에서 보았듯이 중국 남송대 이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양식적으로는 16세기 전반 우리나라 판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본 시왕판화에서는 시왕과 해당지옥의 배치가 조선전기 시왕도와 서로 상이한데, 그 이유는 본 판화의 贊에서 보았듯이 십재일신앙과 시왕을 관련시켜 해당지옥을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팔관재심요』 시왕판화의 지옥배치는 이후 『옥갑기』라든가 『釋門儀範』 등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통용되고 있는 ‘○왕-○지옥’이라는 배치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시왕과 해당지옥의 배치는 중국에서는 적어도 남송대에는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되며, 양국간의 문화교섭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도상이 전해졌으리라 추측되지만 아직까지는 『팔관재심요』의 시왕판화가 가장 이른 예로 전할 뿐이다. 앞으로 남송대 이후 본 시왕판화 이전의 예가 발견된다면 우리나라의 시왕도상의 성립과정과 다양성을 좀더 명백히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㉔ 1. 『佛說八關齋戒秘密求生淨土心要』變相圖, 1529年, 木版本,

23.6×14.2cm(版畫: 14×14cm), 閔泳珪所藏.



㉔ 1-②. 初江王圖

㉔ 1-①. 秦廣王圖



㉔ 1-③. 宋帝王圖



㉔ 1-④. 五官王圖



图 1-⑤. 閻羅王圖



图 1-⑥. 變成王圖



图 1-⑦. 泰山王圖



图 1-⑧. 平等王圖



도 1-⑨. 都市王圖



도 1-⑩. 五道轉輪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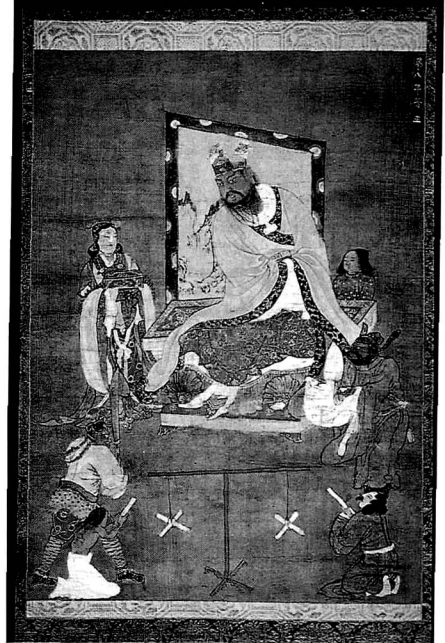
도 2. 十王圖, 南宋(陸信忠筆), 絹本彩色, 日本 都倉家所藏.



도 3. 『佛說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閻羅王圖), 高麗, 木版本, 縱20.5cm, 寶物734-3號, 경남 합천 해인사소장.



도 4. 十王圖. 高麗. 絹本彩色, 104.6×47.5cm,  
일본 入江毅夫(幽玄齋)所藏.



도 5. 十王圖(平等王), 高麗, 絹本彩色,  
미국 個人所藏.



도 6. 十王圖, 15세기경, 絹本彩色,  
67×44. 2cm, 일본 入江毅夫(幽玄齋)  
所藏.



도 7. 十王圖(五官王), 16세기중엽,  
麻本彩色, 88. 0×58. 8cm,  
일본 寶性寺所藏.



도 8. 『寶篋印陀羅尼經』變相圖, 1007년, 木版本, 5.4×10.0cm, 김완섭舊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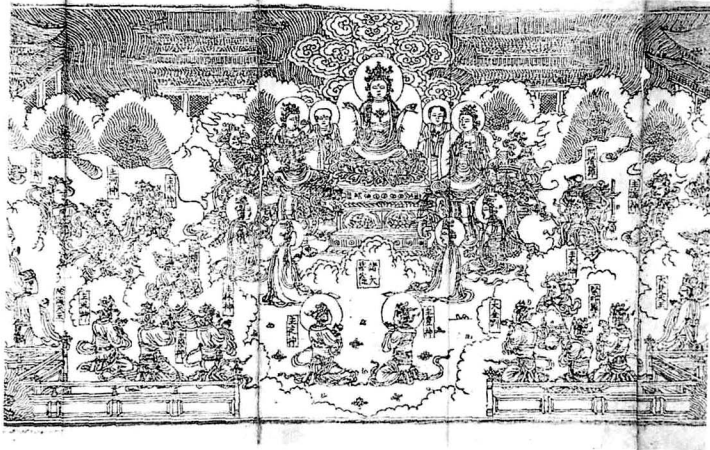
도 9. 『御製秘藏詮』變相圖(부분), 1011~1083년, 木版本, 誠菴古書博物館所藏.



도 10. 『周本大方廣佛華嚴經』卷36 變相圖, 12세기, 木版本, 國寶204號, 趙炳舜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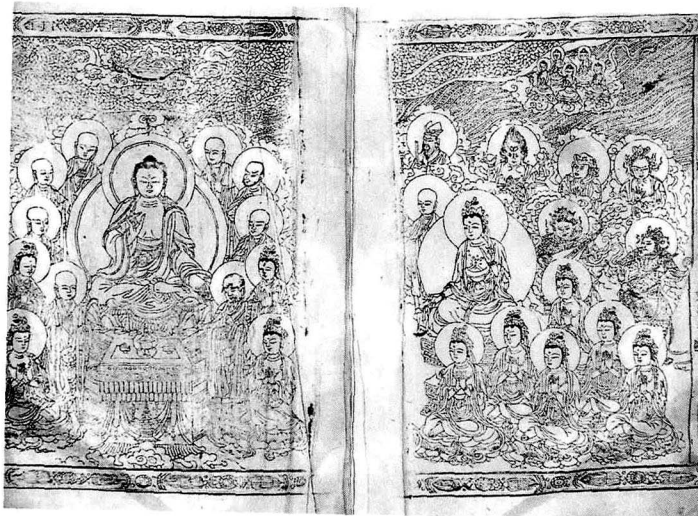
도 11. 『金剛般若波羅蜜經』變相圖, 1357년, 木版本, 25.7×27.3cm, 寶物877號, 三省出版博物館所藏.



도 12.  
『大方廣佛華嚴經疏』卷41  
變相圖, 1372년, 木版本,  
寶物964號, 李華均所藏.



도 13.  
『妙法蓮華經』卷5~7 變相圖,  
1405년, 木版本, 寶物971號,  
李亮載所藏.



도 14.  
『妙法蓮華經』卷4~7 變相圖,  
1448년, 木版本, 29.5×17.8cm,  
寶物766號, 任昌淳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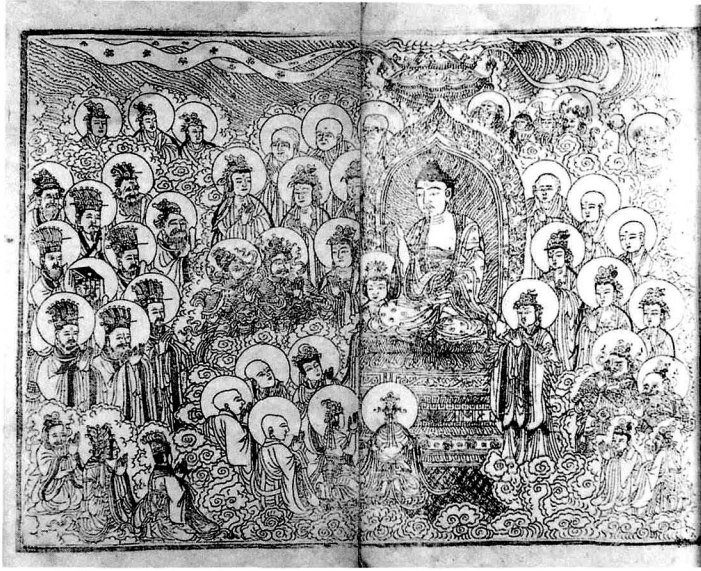


图 15. 『地藏菩薩本願經』卷上·中·下 變相圖, 1469年, 木版本, 寶物966號, 李華均所藏.



图 17.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 1534年, 木版本, 韓國精神文化研究院所藏.



图 18. 『玉樞經』變相圖, 1570年, 木版本, 個人所藏.

도 16.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變相圖, 1520년, 木版本, 韓國精神文化研究院所藏.



도 16-①. 釋迦禮拜枯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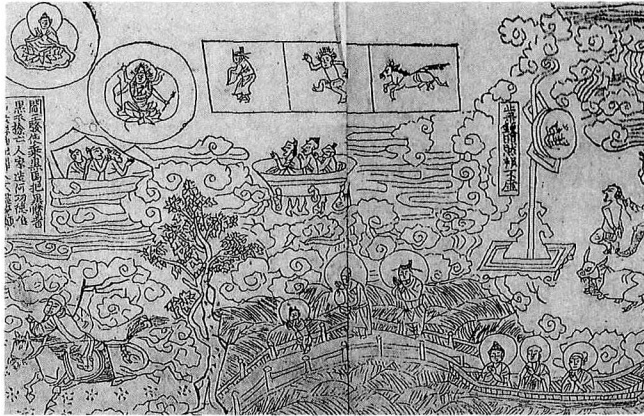
도 16-②. 懷耽守護恩圖



도 16-③. 乳哺養育恩圖



도 16-④. 地獄苦圖



도 19.  
『佛說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 1574년,  
木版本, 個人所藏.



도 20.  
『佛說阿彌陀經』變相圖, 1575년,  
木版本, 個人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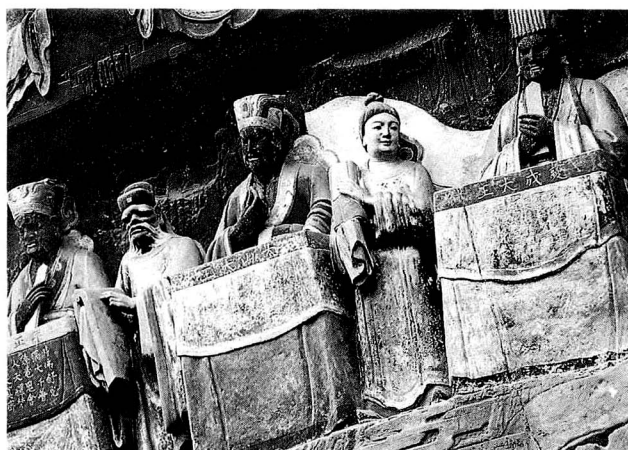


도 21.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變相圖, 16세기, 木版本, 個人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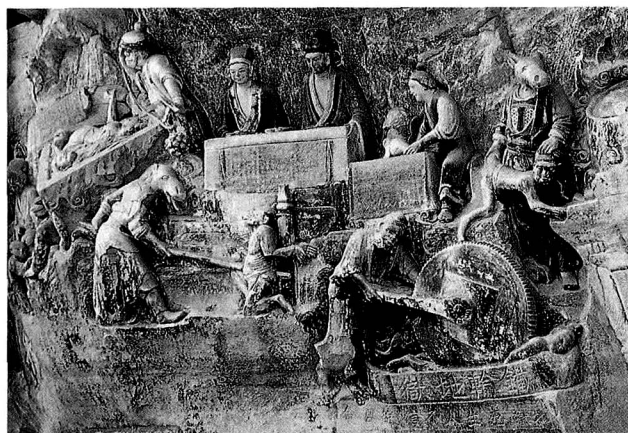
도 22. 地獄變相, 南宋, 높이 14m×폭 20m, 大足石窟 大佛灣 第20龕, 中國 四川省 重慶市.



도 22-①. 全景



도 22-②. 제1층 鐵輪地獄



도 22-③. 平等大王·泰山大王·變成大王